ISSN 2093-5986(Print)
ISSN 2288-0666(Onlin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 No.1 pp.57-66 March 2015
http://dx.doi.org/10.12811/kshsm.2015.9.1.057

재해보험 유형에 따른 진료비 회수기간과 의료미수금의 특성

박은하[1], 황병덕[2]‡
[1]병원경영컨설팅연구소, [2]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Medical Fees Payback Periods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Account Receivables According to the Type of Accident Insurance

Eun-Ha Park[1], Byung-Deog Hwang[2]‡
[1]Hospital Management Consulting Institutes,
[2]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efficient fund managing plans for hospitals by looking into the management of medical fees for accident insurance.

Car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seamen's insurance at a general hospital which is located in Busan during 29 months from January 1, 2009 to May 31, 2011 were assessed. The research data is the total number of 6,293 cases, including 2,251 car insurance cases, 2,350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ases, and 1,692 seamen's insurance cases.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as car insurance and seamen's insurance, including accident insurance, are types of insurance for which employers or traffic accidents offenders shall be the final premium payer. In addition, medical examination fees or premium payers are applied under their respective related law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managers of hospitals to prepare differentiated management schem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urer and schemes to ensure proper recovery strategies of uncollected medical account receivables.

Key Words : Medical Fees, Accident Insurance, Seamen's Insurance, Medical Account Receivables

‡ Corresponding author : Byung-Deog Hwang(suamsam@naver.com)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Received : Feb 13, 2015 • Revised : Mar 16, 2015 • Accepted : Mar 17, 2015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의 수익창출 구조는 크게 의료업과 의료부대사업 운영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은 환자의 진료수입이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병원은 일반기업에 비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병원은 진료 후 발생되는 진료비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진료비 회수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악성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병원은 환자의 지불능력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진료비 또한 진료가 종료되지 않으면 진료비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 의료소비자 또한 본인의 경제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진료비가 발생되어 악성 미수금이 발생된다.

기업이나 병원의 자금은 인체의 혈액과도 같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듯이 병원도 자금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의료수입이 증가하더라도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1] 병원의 자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병원경영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의 특성상 병원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로 진료비를 심사청구한 날로부터 짧게는 15일 길게는 수년간 미수금으로 남아 있게 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미수금으로 되기 때문에 병원경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미수금의 효과적인 관리는 병원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2]. 또한 미수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된 진료비 중 후불로 처리되었다가 추후에 회수되는 진료비로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료행위와 동시에 진료수익으로 인식되고 수납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때 수납되지 아니한 진료수익은 진료미수금으로 남게 되는데[3] 이러한 의료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미수금의 회수지연은 병원 운전자금의 차입에 영향을 미쳐 병원경영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병원의 미수금 총액은 병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만 건당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반면에 대상자는 많아 미수금관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크고 보조부 작성이나 회계 처리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어 진료외적인 기회비용과 회수비용 등 제3의 비용이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익 중 상당한 비율이 제3자 단체인 보험자단체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제도하에서[4]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제공으로 인한 의료미수금은 공적기관이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의료미수금이 발생되더라도 대부분 단기 의료미수금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적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율계약에 의한 선원보험 등에서는 진료비의 회수기간이 외래의 경우 평균 152.5일, 입원의 경우 160.0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2]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이 전적으로 진료비에 의존되고 있고 보험자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수익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보험자 부담의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5]. 특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선원보험 등과 같은 재해보험은 최종적인 지불책임이 사용주나 교통사고 가해자, 선주에게 있으며 진료비 심사 및 지급주체 등이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6].

따라서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준이 각각 다른 재해보험별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험자 특성에 따른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해보험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선원보험의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보험 유형별 진료비발생, 진료비회수 소요기간 및 미수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각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자 또는 진료 유형별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을 파악한다.

넷째, 재해보험 미수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언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재해보험 진료비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선원보험 환자 모두를 진료하고 있는 부산소재 일 종합병원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9개월 간 재해보험을 이용하여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은 수진자들의 진료비발생 및 입금 자료로서 병원 전산시스템과 통계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병원의 재해보험 진료비 관리 실태를 진료비 발생현황,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진료비 발생 후 입금까지 소요기간), 조사시점기준 미수 현황으로 선정하였으며, SPSS version 19.0을 이용하여 재해보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재해보험별 보험자유형 또는 진료유형별 진료비 관리 실태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회전기간 산출은 (식 1)을 적용하였다.

$$\text{의료미수금회전기간(일)} = \frac{\text{의료미수금 잔액}}{\text{의료수익}} \times 365 \cdots \text{식1}$$

Ⅲ. 연구결과

1. 재해보험 진료비 발생 및 회수

1) 재해보험 유형별 진료비 발생현황 및 진료비회수 소요기간

재해보험 유형에 따른 건당 진료비는 선원보험이 1,601,3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보험 707,856원 및 산재보험 458,140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건당 진료일수는 선원보험 9.0일로 가장 길었고 자동차보험 7.1일 및 산재보험 6.0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1일당 진료비는 선원보험이 201,7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보험 106,629원 및 산재보험 60,389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선원보험이 134.1일로 가장 길었고, 자동차 보험 51.9일 및 산재보험 48.8일 순이었으며 선원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2.6배 이상 산재보험보다 2.7배 이상 길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Table 1>.

2) 재해보험 유형별 조사시점 미수현황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선원보험이 2,472,1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보험 722,950원 및 산재보험 463,513원 순이었으며, 선원보험이

자동차보험 보다 3.4배 이상 산재보험 보다 5.3배 이상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자동차보험이 287.2일로 가장 길었고, 선원보험 240.6일 및 산재보험 74.4일순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선원보험보다 1.2배 이상 산재보험보다 3.9배 이상 길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9)가 있었다<Table 2>.

<Table 1> Status of Medical Fees and Payback Period after the Occurrence of Medical Fees by the Type of Accident Insurance (Unit: Case, Won, Day)

Classification	Type of Insurance	N	Mean	S. D.	F(p)
Medical fees for case	Car Insurance	2,251	707,856	1,681,777	122.015 (.000)
	Industrial A. Insurance	2,350	458,140	1,508,622	
	Seamen's Insurance	1,692	1,601,316	3,718,173	
Care days for case	Car Insurance	2,251	7.1	15.144	17.725 (.000)
	Industrial A. Insurance	2,350	6.0	12.565	
	Seamen's Insurance	1,692	9.0	19.643	
Medical fees per day	Car Insurance	2,251	106,629	116, 225	336.677 (.000)
	Industrial A. Insurance	2,350	60,389	88,247	
	Seamen's Insurance	1,692	201,735	284,801	
Payback period after the occurrence of medical fees	Car Insurance	2,251	51.9	73.388	1099.125 (.000)
	Industrial A. Insurance	2,350	48.8	54.792	
	Seamen's Insurance	1,692	134.1	84.181	

Note) Industrial A. Insurance :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able 2> Status of Medical Account Receivables by the Type of Accident Insurance (Unit: Case, Won, Day)

Classification	Type of Insurance	N	Mean	S. D.	F(p)
Medical receivable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Car Insurance	196	722,950	1,623,430	11.082 (.000)
	Industrial A. Insurance	9	463,513	856,871	
	Seamen's Insurance	242	2,472,148	5,146,514	
Unpaid period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Car Insurance	196	287.2	237.966	4.757 (.009)
	Industrial A. Insurance	9	74.4	73.563	
	Seamen's Insurance	242	240.6	243.358	

2. 재해보험 보험자별 또는 진료 유형별 진료비 현황

1) 자동차보험 보험자 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 880,793원 및 공제조합 855,043원, 건당 진료일수는 손해보험사 7.4일 및 공제조합 7.3일, 1일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 114,118원 및 공제조합 115,205원,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손해보험사 1,111,259원 및 공제조합 2,036,293원,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손해보험사 280.2일 및 공제조합 283.1일로 보험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손해보험사 73.1일, 공제조합 65.1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9)가 있었다<Table 3>.

2) 산재보험 진료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산재요양 773,815원, 특별진찰 206,017원 및 후유증상 67,183원 순이었으며, 건당 진료일수는 산재요양 9.7일, 특별진찰 2.0일 및 후유증상 1.3일 순이었고,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산재요양 55.4일, 특별진찰 51.0일 및 후유증상 41.8일 순으로 산재요양이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으면서 건당 진료일수도 가장 길고,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1일당 진료비는 특별진찰 97.975원, 산재요양 65.731원 및 후유증상 48.579원 순으로 특별진찰이 가장 높고 후유증상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특별진찰 670,622원, 산재요양 597,586원 및 후유증상 28,336원,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산재요양 195.3일, 후유증상 88.3일 및 특별진찰 52.0일이었다<Table 4>.

<Table 3> Status of Medical Fees for Case Insurer Type from the Car Insurance (Unit: Case, Won, Day)

Classification	Types of Insurance	N	Mean	S. D.	t(p)
Medical fees for case	Property Insurance	1,770	880,793	2,242,800	.223 (.824)
	Car Association	475	855,043	2,215,685	
Care days for case	Property Insurance	1,770	7.4	15.249	.208 (.835)
	Car Association	475	7.3	14.362	
Medical fees per day	Property Insurance	1,770	114,118	150,263	-.143 (.886)
	Car Association	475	115,205	136,336	
Payback period after the occurrence of medical fees	Property Insurance	1,630	73.1	76.639	2.066 (.039)
	Car Association	439	65.1	71.153	
Medical account receivables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Property Insurance	140	1,111,259	2,206,825	-1.548 (.129)
	Car Association	36	2,036,293	3,406,935	
Unpaid period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Property Insurance	140	280.2	269.858	-.057 (.955)
	Car Association	36	283.1	262.613	

<Table 4> Status of Medical Fees for Case Pattern of Treatment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it: Case, Won, Day)

Classification	Pattern of treatment	N	Mean	S. D.	F(p)
Medical fees for case	I. A. Medical Care	1,362	773,815	1,990,119	62.215 (.000)
	Aftereffect Symptoms	808	67,183	118,603	
	Special Consultation	282	206,017	369,135	
Care days for case	I. A. Medical Care	1,362	9.7	16.007	143.814 (.000)
	Aftereffect Symptoms	808	1.3	.954	
	Special Consultation	282	2.0	1.440	
Medical fees per day	I. A. Medical Care	1,362	65,731	101,839	27.973 (.000)
	Aftereffect Symptoms	808	48,579	64,589	
	Special Consultation	282	97,975	138,006	
Payback period after the occurrence of medical fees	I. A. Medical Care	1,349	55.4	69.606	15.171 (.000)
	Aftereffect Symptoms	805	41.8	27.312	
	Special Consultation	278	51.0	36.091	
Medical account receivables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I. A. Medical Care	13	597,586	899,506	.688 (.516)
	Aftereffect Symptoms	3	28,336	31,760	
	Special Consultation	4	670,622	663,319	
Unpaid period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I. A. Medical Care	13	195.3	237.590	.948 (.407)
	Aftereffect Symptoms	3	88.3	45.501	
	Special Consultation	4	52.0	39.421	

Note) I. A. Medical Care: Industrial Accident Medical Care

3) 선원보험 보험자 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P&I 보험이 1,691,326원으로 가장 높았고 손해보험사 1,582,392원, 한국해운조합 1,186,521원, 수협공제조합 879,298원 순이었다. 건당 진료일수는 손해보험사가 9.8일로 가장 길었고, P&I 보험 9.0일, 한국해운조합 8.1일, 수협공제조합 7.1일 순이었다.

1일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가 234.514원으로 가장 높았고, P&I 보험 205,167원, 수협공제조합 142,072원, 한국해운조합 115,087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다.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P&I 보험이 165.4일로 가장 길었고, 손해보험사 109.3일, 한국해운조합 97.7일, 수협공제조합 90.5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P&I 보험이 3,003,979원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사 1,465,388원, 한국해운조합 1,041,017원, 수협공제조합 578,591원 순이었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손해보험사 338.8일, P&I 보험 218.4일, 수협공제조합 212.9일, 한국해운조합 158.8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0)가 있었다<Table 5>.

<Table 5> Status of Medical Fees for Case Insurer Type from Seamen's Insurance (Unit: Case, Won, Day)

Classification	Type of Insurance	N	Mean	S. D.	F(p)
Medical fees for case	P&I Insurance	1,243	1,691,326	3,949,840	1.862 (.134)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102	879,298	1,869,134	
	Property Insurance Company	267	1,582,392	3,387,152	
	Korea Shipping Association	80	1,186,521	2,563,848	
Care days for case	P&I Insurance	1,243	9.0	19.668	.503 (.680)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102	7.1	14.123	
	Property Insurance Company	267	9.8	22.745	
	Korea Shipping Association	80	8.1	13.155	
Medical fees per day	P&I Insurance	1,243	205,167	239,137	5.239 (.001)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102	142,072	208,962	
	Property Insurance Company	267	234,514	473,169	
	Korea Shipping Association	80	115,087	106,980	
Payback period after the occurrence of medical fees	P&I Insurance	1,243	165.4	81.181	58.876 (.000)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91	90.5	67.328	
	Property Insurance Company	216	109.3	80.166	
	Korea Shipping Association	68	97.7	64.971	
Medical account receivables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P&I Insurance	1,243	3,003,979	5,741,911	2.082 (.103)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11	578,591	773,643	
	Property Insurance Company	51	1,465,388	3,651,376	
	Korea Shipping Association	12	1,041,017	1,942,779	
Unpaid period for case based on the time of the survey	P&I Insurance	1,243	218.4	232.687	3.871 (.010)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11	212.9	249.899	
	Property Insurance Company	51	338.8	273.692	
	Korea Shipping Association	12	158.8	133.808	

3. 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 회전기간

연구대상 기간의 각 연도별로 재해보험 유형별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2009년 67.7일, 2010년 85.4일, 2011년 6월까지 54.3일이었고, 산재보험은 2009년 98.7일, 2010년 36.6일, 2011년 6월까지 6.3일, 선원보험은 2009년 176.4일, 2010년 149.7일, 2011년 6월까지 139.5일이었다 <Table 6>.

<Table 6> Turn-around Periods of Medical Account Receivables for Case Type of Accident Insurance (Unit: Day)

Type of Insurance	2009 (Year)	2010 (Year)	2011(Year) up to June
Car Insurance	67.7	85.4	54.3
Industrial A. Insurance	98.7	36.6	6.3
Seamen's Insurance	176.4	149.7	139.5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재해보험의 진료비발생 및 회수현황을 파악하여, 병원경영에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부산지역 일 종합병원의 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6,293건으로 이중 자동차보험은 2,251건, 산재보험은 2,350건, 그리고 선원보험 1,692건이었다.

재해보험 유형별 건당 진료비는 선원보험 1,601천원, 자동차보험 707천원, 산재보험 458천원이었고, 건당 진료일수는 선원보험 9일, 자동차보험 7.1일, 산재보험 6일이었으며, 1일당 진료비는 선원보험 201천원, 자동차보험 106천원, 산재보험 60천원으로 재해보험 유형별 진료비 발생현황에서 건당 진료비와 건당 진료일수는 선원보험이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1일당 진료비도 선원보험이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이는 Woo[7]의 연구에서 육상근로자(산재보험)보다 해상근로자(선원보험)의 재원일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자동차보험 51.9일, 산재보험 48.8일 그리고 선원보험 134.1일로 선원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2.6배, 산재보험보다 2.7배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는데 자동차보험이나 선원보험보다 전자청구를 하는 산재보험이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선원보험이 2,472천원으로 가장 높게 발생되어 있으며, 건당 미수기간은 자동차보험 287.2일로 가장 긴 상태였고, 산재보험이 건당 미수금 463천원과 미수기간 74.4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유의한 차이(p<.000)가 있었다.

자동차보험은 건당 진료비 · 건당 진료일수 · 1일당 진료비 ·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 ·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이 보험자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손해보험사(73.1일)가 공제조합(65.1일)보다 1.1배 정도 길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9)가 있었다.

산재보험은 산재요양이 건당 진료비가 773천원으로 가장 높으면서, 건당 진료일수도 9.7일로 가장 길었고, 진료비회수 소요기간도 55.4일로 가장 오래 소요되었다(p<.000). 반면 후유증상은 건당 진료비가 67천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건당 진료일수 및 진료비회수 소요기간도 각각 1.3일, 41.8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았으나(p<.000), 1일당 진료비는 특별진찰이 9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p<.000).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과 미수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원보험의 건당 진료비는 P&I 보험이 1,691,326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협공제조합이 879,29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건당 진료일수는 손해보험사가 9.8일로 가장 길었고 수협공제조합이 7.1일로 가장 짧았다.

선원보험의 1일당 진료비는 손해보험사가 234.514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해운조합이 115,087원으로 가장 낮았고(p<.001) 진료비회수 소요기간은 P&I 보험이 166.4일로 가장 길었고 수협공제조합 90.5일로 가장 짧았다(p<.000).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금은 P&I 보험이 3,003,979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공제조합이 578,591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조사시점기준 건당 미수기간은 손해보험사 338.8일로 가장 길었고 한국해운조합이 158.8일로 가장 짧았다(p<.010).

여기서 P&I 보험은 국외 보험으로서 대표적인 P&I Club은 국제그룹협정(Internal Group Agreement: IGA)에 포함되어 있는 13개 Club들로 American, Japan Club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에 소재한다[8]. 따라서 손해보험사 · 한국해운조합 ·

수협공제조합과 같은 국내 보험 보다 진료비의 회수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이유는 P&I 보험 국내 중개회사와 해운회사를 경유하여 진료비의 청구 및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진료비의 청구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병원과 P&I 보험과의 관계에서 이들 회사의 역할 영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된다.

재해보험의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은 전반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며 전자 청구를 하는 산재보험이 연구대상기간 평균 47.2일로 가장 짧았고 자동차보험은 2개월~3개월, 선원보험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었다.

이는 KHIDI[9]의 2011년도 대도시 지역 300병상 이상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이 42.1일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구대상 병원의 의료미수금회전기간은 연구대상기간 평균 산재보험이 1.1배, 자동차보험이 1.6배, 선원보험이 3.7배 이상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과 선원보험에서 의료미수금의 과다 발생 및 진료비 지연지급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선원보험 중 P&I 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나 선원공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른바 선 지급규정(Pay to be paid 원칙)이라는 것이다[10]. 선원이 피보험자가 아닌 상태에서 재해보상을 받는 절차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수급권자로 제도화 되어 산재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진료비 및 모든 보험금이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를 통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지연되고[11] 또한 선원보험은 선원의 진료에 대한 선택권이 대부분 보험자에 의하여 수동적[12]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또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구도시에 국한되어 취급[13]되고 있어 대부분의 보험자가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하고 진료비 지급기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 등으로 보험자의 일방적인 삭감이나 지연지급에 병원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 · 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14])에 진료비를 심사청구 한 경우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료비가 상당기간 미수금으로 계상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진료비 지급기준이 공적보험에 준하여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병원은 진료비를 보전 받지 못하거나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자 특성에 따른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리 및 의료미수금 회수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선원보험 환자 모두를 진료하고 있는 일 종합병원의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선원보험이 항구도시에 국한되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 병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으나, 1개 병원의 자료를 활용한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의료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재해보험별 보험자 특성에 따른 진료비의 차별화된 관리 및 의료미수금 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병원경영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H. Shin(2005), A Case Study of Effective Management at Outstanding Medical Fees by 6-Sigma Technique, Yonsei University, pp.4-5.
2. E.H. Park, B.D. Hwang(2014), Accrual Medical

Expenses and Actual Situation of Medical Receivable,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19(3);1-10.
3. Y.C. Ahn(2007), Hospital Financial Management, Bomungak, pp.285-290.
4. Y.T. Kim(2007), A Study on the Accounting Practices of Hospitals in Incheon Metrpolitan Area,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Science, pp.7-8.
5. H.S. Yoon(1994), The Study on the Realities of Insurance Companies' Medical Charge Payment in the Hospital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pp.1-2.
6. C.I. Kwon, J.H. Kim, J.H. Kim, S.H. Lee(2007), Social-Economic Effects of Integrating Insurance Review Systems: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 Accident Insuranc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20(1);105-125.
7. M.H. Woo(2011), The Study on the Medical Treatment Utilization in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f Land Workers and Maritime Worker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30.
8. H.S. Kim(2009), The Study about Insurance Guarantee System for Oil Pollution from P&I Club, Sungkyunkwan University, pp.18-19.
9.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System(2014),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ttp://125.60.29.108/stat_html/statHtml.do
10. Y.W. Jeon(2001), Limitations of the Present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and Recent International Trends for Improving the System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System - Maritime Law Review, Vol.13(1);89-119.
11. J.S. Kim(2005), Study for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for Seamen, Korea Maritime University, pp.82-83.
12. E.J. Jeong, B.D. Hwang(2011), The Influence on Selecting the Medical Institute for Treatment by Patients Who Had Abnormal Findings through the Private Health Screen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5(4);1-13.
1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2013),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2013, p.297.
14. T.S. Park(2005), An Analysis of Automobil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Uses of the Medical Services : Focused on Those Users of a University Hospital, Kyung Hee University, p.8.